



NAKS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재미한국학교협의회

www.naks.org

문서번호: NAKS-15BOD-36-20240510

발 신: 이사장 박종권

수 신: 손민호

참 조: NAKS 이사회

제 목: 제명 통지

발 송: 2024 년 5 월 10 일

제 명 통 지 서

2024 년 5 월 10 일

손 민 호 귀하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2024 년 5 월 9 일 제 66 차 이사회에서 귀하에 대해 징계심의 절차를 갖고 '제명'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귀하께 통지합니다.

심사 과정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이사회는 2024 년 3 월 21 일에 개최된 제 65 차 이사회에서 당연직 이사 및 선출직 이사, 전직 이사 등으로부터 상정된 귀하에 대한 징계심사 요청을 토의한 결과, 협의회 수호 및 낙스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귀하에 대한 징계심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이사회 의결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김미경 외 8 인)를 구성했음.

특별조사위원회는 취합된 내용을 토대로 2024 년 4 월 27 일과 5 월 5 일 회의를 갖고 귀하의 헌장 위반 및 임원 협박행위, 유관기관에 거짓정보 제공 등 업무방해와 그에 따른 심각한 낙스 신뢰도 및 명예 실추 등 징계 항목을 이사회에 상정.

징계 결정

2024 년 5 월 9 일 제 66 차 이사회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상정안을 심의하고 제명을 의결.

징계 사유

반낙스측(당시 자칭 총회장권한대행 윤혜성)은 불법적으로 차기(22 대) 총회장과 부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으나 총회는 정족수마저 채우지 못해 자체 의결기구로서의 법적 근거를 상실했음. 더구나 기대했던 총회장 후보마저 사퇴해서 아무 의미 없는 총회가 되었음에도 반낙스측은 손민호 씨를 부회장으로 선출. 법적효력이 없는 당선자를 내세움. 선출당시 손민호 씨는 후보자격도 갖추지 못했음(정관은 교장 교감으로 제한).

그 직후 손민호 씨는 자신이 22 대 총회장권한대행이라고 주장하며 협의회를 혼란에 빠뜨림. 권한대행은 현직에 있던 총회장이 유고되는 돌발상황에서 차기 총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비상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부여받는 직책인데, 반낙스 측은 총회장도 없이 22 대를 출범시켰고, 존재하지 않던 총회장을 대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 또한 총회장에게만 부여된 임원 선임 권한을 부회장이 총회장 행세를 하며 불법적으로 집행부를 구성한 것도 헌장 위반. 낙스 직인과 로고도 권한없이 사용하는 등 불법적 처사로 낙스의 신뢰도를 대내외적으로 실추시킴. 아울러 추성희 총회장이 이끄는 합법적 집행부 임원들에게 수시로 협박성 이메일을 발송, 임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업무를 방해함. 이외에도 철저히 보안유지되어야 할 회원교 정보를 아무 제약없이 도용함. 대외적으로는 협의회와 유관협력기관에 자신이 총회장 권한대행이라고 행세하며 정상적 낙스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정보를 퍼뜨림.

[별첨]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내용

이사장 박종권